

한중 순차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적 분석*

야 오 칸
(한국외대)

1. 서론

논리는 언어 표현을 지배하는 척도로 언어에 논리가 없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논리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언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리엔화(李衍華, 2010)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언어요소를 이용하여 문법을 분석하지만 언어 요소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역은 그 속성상 ‘내가 공부한 외국어’를 활용해 ‘해당 외국어와 그 문화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언어권의 구조와 표현은 물론 사회 문화적 이해까지 포함해 전달해야 하므로 목표언어권의 모국어 화자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강수정, 2019). 이를 위해서는 탈언어화, 표현,

검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논리가 없다면 사고가 뒤엉키게 되고 통역에 오류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 통역에 있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학자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에 허룡평(賀龍平, 2013)은 중국 번역가 엔푸(嚴復)가 3가지 번역 기준 ‘신(信)’, ‘달(達)’, ‘아(雅)’를 제시하였을 때 비록 논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달(達)’을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유창함, 탄탄한 구조 및 논리’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하였다. 신(信), 달(達), 아(雅)는 번역을 진행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이지만 데장 펠(K. Dejean le Feal, 1990:155, 남성우, 2016:354 재인용)이 말한 통역의 원칙, 즉 “바람직한 통역은 원어로 듣는 것과 같은 인지적 내용을 동일한 수준의 언어로, 동일한 명료함과 정확함을 유지하며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통역은 논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통역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그동안 통번역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해 줄곧 외면을 받아온 논리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진행되는 순차통역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번역대학원 학습자의 순차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논리 범주의 오류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논리와 논리학

논리는 인간 사고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 논리는 인간이 생각한 것을 다시 말로 표현하는 원리이다.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논리학이라고 하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호희천(2013:17)은 “논리학을 가리키는 영어 logic과 독일어 logik은 어원적으로 볼 때 그리스어 ‘로고스(logos)’의 형용사인 ‘로키코스(logikos:합리적인)’에서 유래했

* 본고는 2019년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한중 순차통역 평가 기준 연구: 도착어 텍스트 내적 차원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다. ‘로고스’가 ‘이성, 말, 비율’이란 의미를 가지므로 그 형용사형인 ‘로기코스’는 ‘이성에 합당한’, ‘이성의 법칙에 합치하는’, ‘말이 되는’, ‘비율에 따르는’ 등을 뜻한다. 그러므로 논리학은 말다운 말이 어떤 것이며,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사고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기술하였다.

현재 논리학을 연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일반적으로 2가지이다. 그 중의 하나는 소위 형식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증논리이다(성홍기, 2014:15). 변증논리는 실제(實在)와 대상을 주목하는 반면에 형식논리는 주로 사유의 내용을 주목한다. 본고는 통역 결과물을 분석하고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며 더 나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리 및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형식논리학의 체계를 인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2. 논리의 구성요소

형식논리학은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 사고의 형식을 개념화, 판단, 추리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각 민족의 언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개념화, 판단, 추리 등 동일한 사고형식을 통하여 사물을 지칭하고 사실과 논리를 서술하며 감정 및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개념화는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구분하는 사고형식이다. 인간이 사과를 보고 그것을 ‘사과’로 인식했다는 것은 사과와 다른 사물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사과’를 개념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된 사물을 지시하는 이름을 개념이라고 한다. 개념은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의 2가지 속성을 갖는다. 내포는 지시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속성이고 외연은 지시될 수 있는 사물의 구체적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란 개념의 내포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등이다. ‘학생’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중학교생, 고등학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다.

판단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단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헤아려 가리는 것으로 사고 대상에 대해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하는 사고형식이다. 가령 사과를 보고 ‘사과’로 인식하는 것을 개념화라고 한다면, ‘사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물의 성질을 판단하는 사고의 내용을 명제라고 한다.

명제는 개념으로 구성된 ‘단순명제’와 단순명제로 구성된 ‘복합명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명제는 다른 명제나 논리적 연결사를 포함하지 않고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명제를 말하며 개념의 결합 방식에 따라 정언명제와 관계명제로 나눌 수 있다. 정언명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지칭하는 개념과 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단정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주어개념이라 하고 후자는 술어개념이라 한다. 이외에 주어개념과 술어개념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사도 포함된다. 중국어의 경우, 이것은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 “是(이다)”와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 “不是(아니다)”로 언명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어개념과 술어개념의 내포를 증가시켜 외연을 줄여들게 하는 한정사(限定詞)도 있다.

〈표 1〉 정언명제의 예시

종류	한정사	주어개념	연결사	술어개념
정언명제		我	是	中國人。
	大部分	消費者	不是	中國人。

관계명제는 사람, 사물, 장소, 시간 등 사태(1)와 다른 사태 간의 관계를 단정하는 명제이다. 관계명제는 주어개념, 술어개념, 관계사 그리고 한정사로 구성된다.

〈표 2〉 관계명제의 예시

종류	한정사	주어개념	관계사	한정사	술어개념
관계명제		老師	表揚了	一部分	同學。
	很多	學生	吃過		云南米線。

1) 사람, 사물, 장소, 시간 등을 말하는 논리학 용어이다.

복합명제는 하나 이상의 요소명제와 하나 이상의 논리 연결사로 이루어진 명제이다. 복합명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명제의 결합 관계에 따라 연언(連言)명제, 선언(選言)명제, 가언(假言)명제로 분류할 수 있다.

연언명제는 여러 사태나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단정하는 복합명제이다. 연언명제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요소명제와 이들 간의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연결사로 구성된다. 중국어의 경우, “并”, “即是.....又是.....”, “不但.....而且”, “不是.....而是.....”, “雖然.....但是.....” 등의 접속사가 논리적 연결사에 속한다.

〈표 3〉 연언명제의 예시

종류	연언지	연언지
연언명제	他即是亞洲冠軍,	也是世界冠軍。
	他不是不會吃,	而是不想吃。

선언명제는 2개 이상의 술어개념 가운데 하나와 일치 혹은 불일치한다고 단정하는 복합명제이다. 오용득(2005:78)은 선언명제를 “하나의 주어개념에 붙을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술어개념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명제”로 정의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선언명제에 속하는 논리적 연결사는 “可能.....可能.....”, “也許.....也許.....”, “不是.....就是.....”, “或者.....或者.....”, “与其.....不如.....” 등이 있다.

〈표 4〉 선언명제의 예시

종류	선언지	선언지
선언명제	他們可能去進修外語,	也可能去度假。
	這裡的留學生不是中國人,	就是日本人。

가언명제는 다른 하나의 명제를 가정한 후 이를 가설적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복합명제이다. 오용득(2005)에서 “가언명제를 구성하는 2가지의 요소명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언명제의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언명

제에는 가설적 조건이 되는 요소명제와 궁극적으로 주장되는 요소명제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2가지의 요소명제를 단순하게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이 2가지 요소명제를 연결해 주는 논리적 연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假如.....那么.....”, “只要.....就.....”, “一旦.....就.....”, “必須.....才.....”, “除非.....才.....”, “不.....不.....”, “如果.....就.....”, “只有.....才.....” 등의 접속사가 이에 해당된다.

〈표 5〉 가언명제의 예시

종류	전건	후건
가언명제	假如不保護好水資源,	那么我們的下一代將會沒有水喝。
	只要提高技術水平,	就能在比賽中獲得勝利。

추리는 이미 알고 있는 1개 혹은 여러 개의 판단으로 다른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는 사고형식이다. 즉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다른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추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사유의 흐름이다. 추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유의 흐름은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식별 가능한 현상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언어를 매개로 하여 구체화시킨 것을 논증(Argument)이라 한다(성홍기, 2019:39). 즉 추리를 언어로 표현된 것이 논증인 것이다. 논증이 명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지만 명제들의 집합이 모두 논증인 것은 아니다. 명제들이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논증이 된다. 즉 알고 있는 명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새로운 명제의 집합인 것이다. 논증은 논증하는 자가 옹호하는 명제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하는 다른 명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전자를 결론, 후자를 전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전제나 결론을 암시하기 위해 특정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제를 가리키는 표현을 ‘전제 지시어’, 결론을 가리키는 표현을 ‘결론 지시어’라고 부른다. 전제 지시어와 결론 지시어는 논증하는 글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국어의 경우, 전제 지시어에는 “因爲”, “由于”, “根据”, “基于” 등이 있고 결과 지시어에는 “所以”, “因此”,

“因而”, “于是”, “總之”, “這樣一來”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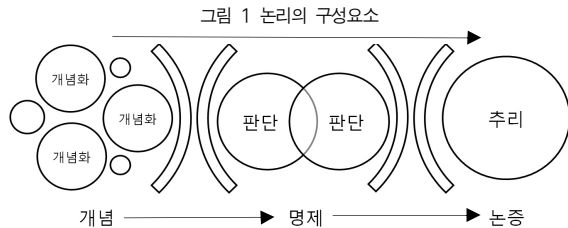
〈표 6〉 논증의 예시

종류	전제	연결사	결론
논증	所有体操教練都是体育工作者。	所以,	有些体育工作者是体操教練
	我們學校所有教職工都不吸烟。 王老師是我們學校的教職工。	所以,	王老師不吸烟。

본고는 상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의 구성 요소를 개념, 명제, 논증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2.3. 논리적 오류의 분석 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 명제, 논증에 따른 사고의 체계는 사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념을 통해 명제를 내리고, 새로 얻어진 명제를 근거로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슬에 따라 사고가 구현된다면 통상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방식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논리적 사고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 이 말은 개념, 명제, 논증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논리의 사고 사슬이 끊어져 발화나 글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논리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논리적 오류라고 한다.

형식논리학에서는 개념, 명제, 논증의 오류를 평가할 때 타당성(validity)과

건전성(soundness)의 2가지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타당성은 사고 과정의 형식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 건전성은 사고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오류는 사고 형식의 형태, 배열, 기술적 구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타당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다.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 명제, 논증 측면에서의 잘못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단, 개념은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작은 요소로 명제 없이 개념만 있으면 형식적 측면, 즉 타당성에 문제와 내용적 측면, 다시 말해 건전성에 문제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 본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명제는 구성요소에 따라 단순명제와 복합명제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명제의 형식적 오류는 이를 구성하는 개념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복합명제의 형식적 오류는 개념 측면 외에 이를 구성하는 단순명제의 배열 관계나 순서 등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 외에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담고 있는 명제의 집합인 논증도 복합명제와 마찬가지로 개념 측면 외에 이를 구성하는 단순명제의 배열 관계나 순서 등 측면에서 형식적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명제의 타당성은 이를 구성하는 개념 간의 오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합명제와 논증은 이를 구성하는 단순명제 간의 오류, 그리고 단순명제를 구성하는 개념 간의 오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복합명제의 오류를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단순명제 간의 형식적 오류만 고찰하였으며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단순명제 내부의 형식적 오류, 즉 단순명제를 구성하는 개념 간의 오류는 복합명제 측면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해당 오류는 단순명제 측면에서만 고찰하였다. 또한 통역 결과물의 논리적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 논증을 특별할 형태의 복합명제로 간주할 수 있어 이를 따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논증의 타당성을 복합명제의 타당성과 합쳐 ‘복합명제와 논증의 타당성’에서 검토하였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용적 오류라고 한다. 이는 주로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문제’로 나타난다. 논리학에 있어 내용적 오류를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 심리적 오류, 자료적 오류, 그리고 언어적 오류로 분류한 경우가 많다. 이 중에 언어적 오류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로 대개 언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의 주된 목표는 통역 결과물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논리학에서 다루는 심리적 오류와 자료적 오류보다 언어적 오류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언어적 오류만 다루었다. 내용적 오류는 개념, 명제, 논증 등 논리 구성요소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오류와 마찬가지로 복합명제와 논증의 내용적 오류를 구분하여 따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논증의 내용적 오류를 복합명제와 합쳐 복합명제와 논증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 한중 순차통역 결과물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 틀을 다음 <표 7>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논리적 오류의 분석 틀

구분	측면	세부 항목
논리적 범주	형식적 측면	단순명제의 타당성
		복합명제와 논증의 타당성
	내용적 측면	단순명제의 건전성
		복합명제와 논증의 건전성

3.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학습자의 중국어 순차통역 결과물(코퍼스2)를 구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퍼스는 구축 목적, 가공여부, 텍스트 유형, 언어 매체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코퍼스는 내용을 가공하지 않은 원시 코퍼스이다. 내용은 대부분 신문, 기사, 연설문 등 전문적인 문어체 텍스트에서 선정된 것이고, 결과물 또한 전사 작업을 거쳐 문서 텍스트 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보다 다양한 집단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순차통역3)

2) 다른 형태의 언어 자료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 컴퓨터로 읽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후 구축한 말뭉치를 뜻한다.
3)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은 총 2년, 4학기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순차통역은

수업을 이수한 학습자 총 40명의 중국어 통역 결과물을 모았다4). 연구에 참여한 40명 학습자는 입학 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2학년 1학기 한중순차통역3 과목을 이수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학습자들이 제공한 연구 자료도 한중순차통역3 수업 시간에 통역한 결과물을 녹음한 후 전사 작업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중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크게 한국어 원어민과 중국어 원어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 원어민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와 한국에서 자랐고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중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원어민은 이와 달리 크게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란 재중 한국 교포(이하 ‘조선족 화자’라고 칭함)와 재한 중국 교포(이하 ‘화교 화자’라고 칭함)5), 또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학습자 분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성하여 통번역대학원에 실질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대상 학습자를 한국어 원어민과 중국인 원어민 2개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국내파 화자와 해외파 화자, 그리고 한족(漢族) 화자와 조선족(朝鮮族) 화자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학습자 중 10명은 중국 본토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중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국내파 화자’이고 15명은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대부분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한 ‘해외파 화자’이다6). 그리고 5명은 한국어를

필수교과목으로 매 학기 1과목씩 개설된다. 한중순차통역3은 2학년 1학기 한중순차통역과목을 가리킨다.

4) 총 48명 수강생 중에 8명은 성실하게 전사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연구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5) 재중 한국 교포와 재한 중국 교포는 성장 환경에 따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경우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경우가 상이하다. 본고는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이 두 집단을 모두 중국어 원어민으로 간주한다. 단, 재한 중국 교포의 경우, 전체 학습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인원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어 본고는 해당 집단을 연구 사례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6) 한국어 원어민의 경우 국내파와 해외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본고에서 중국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5년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중국 유학을 가서 중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학습자로 본고에서 ‘국내파 화

제2외국어로 학습한 ‘한족 화자’이고 나머지 10명은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한 ‘조선족 화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 대상 분포

구분	기준		인원수
한국어 원어민	국내파 화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중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자	10
	해외파 화자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자	15
중국어 원어민	한족 화자	중국어 모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자	5
	조선족 화자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자	10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한중 순차통역 수업은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연설문 텍스트를 선정한 후 수업 시간에 실제 통역 상황을 모방하여 순차통역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연사 한 명이 일정 시간 동안 텍스트를 읽고 나머지 학습자들은 동시통역 부스에서 연사의 말을 통역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통역 결과물은 한중 순차통역 수업 후 학습자가 본인이 수업 시간에 녹음한 통역 내용을 MS워드로 전사하여 한국어 원문과 함께 병기한 것이다⁸⁾.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정규 과정은 중간과 기말 시험 주간을 제외하면 한 학기에 약 14주의 순차통역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고에서 구축한 코퍼스 중 통역 결과물 텍스트의 수는 총 560건에 달한다.

자’로 정의하였다. 5년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학습자로 본고에서 ‘해외파 화자’로 정의하였다.

7) 현재 통번역대학원 한중순차통역 수업 시간에는 연사가 대부분 3~5분 정도 발화한다.
8) 한국어 원문과 학습자가 중국어로 통역한 내용이 텍스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4. 사례 분석

4.1. 형식적 측면: 단순명제의 타당성

단순명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명제를 구성하는 개념 간의 형식적 측면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고에선 단순명제를 구성하는 주어개념, 술어개념, 연결사(관계사)를 통틀어 요소개념이라고 하며 이 외에 한정사와 요소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을 일반개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순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형식적 오류는 크게 요소개념의 오류와 일반개념의 오류로 나눌 수 있다.

4.1.1. 요소개념 간의 형식적 오류

정언명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 주어개념은 술어개념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주어개념은 술어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㉟-1.대한민국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밝고 활기찬 나라입니다.

㉠-1.韓國是一座生机勃勃的不夜之城。

㉠-1.한국은 잠들지 않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학습자는 ㉟-19)의 ‘대한민국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밝고 활기찬 나라’를 “韓國是生机勃勃的不夜之城(한국은 잠들지 않는 활기찬 도시입니다)”으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이 정언명제의 주어개념은 나라를 뜻하는 “韓國(한국)”이지만 술어개념은 도시를 뜻하는 “不夜之城(잠들지 않는 도시)”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도시와 나라는 외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대립적 관계를 가진 두 개념이다. 따라서 ㉠-1은 주어개념이 술어개념과 관련성이 없는 논

9) ㉟는 통역 원문이고 ㉠는 학습자의 통역 결과물이며 ㉠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학습자통역 결과물의 의미와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결과물을 충실하게 번역한 축어역이다.

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를 “韓國是一個24小時灯火通明的无夜之國(한국은 24시간 내내 불빛으로 환한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으로 수정하면 주어개념의 외연과 술어개념의 외연이 일치하여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주어개념의 외연은 술어개념의 외연과 동일하여야 한다. 즉 주어개념은 술어개념과 동일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㉟-2. 전문가들은 통일 경제 규모가 오는 2050년경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본다.
- ㉟-2. 專家預測, 到2050年, 統一韓國將會成爲世界五大經濟體。
- ㉟-2.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통일한국이 세계 5대 경제체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㉟-2는 “成爲(되다)”를 연결사로 활용한 정언명제이다. 주어개념 “統一韓國(통일한국)”는 술어개념 “世界五大經濟體(세계 5대 경제체들)”의 외연과 일치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統一韓國(통일한국)”는 “世界五大經濟體(세계 5대 경제체들)”보다 외연적으로 좁은 개념이다. 따라서 ㉟-2는 주어개념과 술어개념이 외연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㉟-2를 “統一韓國將會成爲世界五大經濟體之一(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통일한국이 세계 5대 경제체 중 하나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로 수정하면 주어개념과 술어개념 간의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관계명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 관계사는 주어개념과 어울려야 한다.

- ㉟-3.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 ㉟-3. 現在中國被分裂爲發展中國家。
- ㉟-3.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㉟-3은 “分裂(분열하다)”가 관계사로 구성된 관계명제이다. 관계사인 “分裂

(분열하다)”는 주어개념인 ‘中國(중국)’과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㉟-3은 논리적 오류를 범한 관계명제이다. ㉟-3을 “現在中國被列爲發展中國家(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로 수정하면 주어개념과 관계사 간의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둘째, 관계사는 술어개념과 어울려야 한다.

- ㉟-4.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 ㉟-4. 智能路燈和智能攝像頭可以用來減少犯罪率。
- ㉟-4.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CCTV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㉟-4는 “減少(감소하다)”를 관계사로 활용한 관계명제이다. 하지만 관계사인 “減少(감소하다)”는 술어개념인 “犯罪率(범죄율)”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통상적으로 “減少(감소하다)”는 ‘수량’과, “降低(낮추다)”는 “比率(비율)”과 어울린다. 따라서 ㉟-4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 관계명제이다. ㉟-4를 “智能路燈和智能攝像頭可以用來降低犯罪率(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다)”로 수정하면 관계사와 술어개념 간의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¹⁰⁾.

4.1.2. 일반개념 간의 형식적 오류

주어개념과 술어개념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명제를 구성하는 일반개념 간

10) 논리, 문법의 연구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실제 언어 행위에 있어 이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논리는 표현된 언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문법은 표현된 언어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규칙이다. 언어 표현을 분석할 때 논리와 문법으로 동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명제의 경우 문법 영역의 언어 관계로 접근할 수 있지만 논리 영역의 개념 간의 관계로도 분석할 수 있다. 각도에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본고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논리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류는 일반적으로 병렬(並列)과 수식(修飾)의 2가지 관계에서 나타난다. 병렬은 주로 나열, 구분과 분류에 의한 것이며 수식은 주로 한정과 정의에 의한 것이다.

나열은 2개 이상의 개념을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명제 중에 ‘사과’라는 개념과 ‘바나나’라는 개념은 나열된 2개의 개념이다. 논리학에서 이렇게 나열된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일관계를 가진 개념들이나 함축관계를 가진 개념들 또는 교차관계를 가진 개념들을 나란히 늘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 ㉔-5. 낮의 활력을 북돋우는 거리의 다양한 공연과 축제가 있다.
- ㉕-5. 白天有各种各樣的街頭表演和活動，充滿着活力。
- ㉖-5. 낮에는 다양한 거리공연과 활동이 있어 활기가 찬다.

학습자는 ㉔-5의 ‘공연과 축제’를 “表演和活動(공연과 활동)”으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表演(공연)”은 “活動(활동)”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어 함께 나열할 수 없다. 즉 “活動(활동)”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表演(공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㉕-5는 교차관계를 가진 두 개념을 나열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㉖-5의 “街頭表演和活動(거리공연과 활동)”을 “街頭表演和慶典活動(거리공연과 축제행사)”로 수정하면 함축 관계를 가진 두 개념의 나열로 인한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街頭表演(거리공연)”이라는 개념은 “慶典活動(축제행사)”이라는 개념과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이란 개념의 외연을 분할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하나의 유개념을 여러 개의 종개념으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개념을 종개념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원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첫째, 하나의 유개념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㉗-6. 뮤지컬이란 ‘연기, 음악, 무용, 줄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가미된 공연 예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㉘-6. 音樂劇是一個演技、音樂、跳舞、故事融為一體的綜合藝術。

㉗-6. 뮤지컬은 연기, 음악, 춤추기, 스토리를 하나로 융합한 종합예술이다.

학습자는 ㉔-6의 ‘연기, 음악, 무용, 줄거리’를 “演技(연기)、音樂(음악)、跳舞(춤추기)、故事(스토리)”로 통역하였다. 뮤지컬이라는 종합 공연예술을 여러 개의 종개념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병렬된 종개념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表演(연기)、音樂(음악)、舞蹈(무용)、劇情(줄거리)”으로 수정하면 유개념 간의 기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表演(공연)、音樂(음악)、舞蹈(무용)、劇情(줄거리)”는 모두 뮤지컬의 표현 방식이라는 기준에 의해 구분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분된 종개념들의 외연 총합은 유개념의 외연과 일치하여야 한다.

- ㉙-7. 지금 세계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가 대략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십 종의 원유 가운데서 서부 텍사스 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 3가지가 3대 유종(油種)으로 꼽히고 국제 원유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㉚-7. 在全球範圍內，有70多個產油國。其中，全球三大油種可分為布倫特原油、迪拜原油和西德州原油。這三個油種是決定油價的標準。
- ㉛-7.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산유국이 있다. 이 가운데, 세계 3대 유종을 브렌트 원유, 두바이 원유, 서부 텍사스 원유로 나눌 수 있다. 이 3가지 유종은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학습자는 ㉙-7의 ‘서부 텍사스 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 3가지가 3대 유종(油種)으로 꼽힌다’를 “全球三大油種可分為布倫特原油、迪拜原油和西德州原油(세계 3대 유종을 브렌트 원유, 두바이 원유, 서부 텍사스 원유로 나눌 수 있다)”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유개념인 “全球三大油種(세계 3대 유종)”의 외연과 구분된 종개념인 “布倫特原油、迪拜原油和西德州原油(브렌트 원유, 두바이 원유, 서부 텍사스 원유)”는 외연의 총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油種”는 모든 오일의 종류를 말하며 식물유(植物油), 동물유(動物油), 기계유(機器油)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㉚-7에 있는 “全球三大油種(세계 3대 유종)”를 “全球三大原油(세계 3대 원유)” 또는 “全球三大原油的品種分別是(세계 3대

원유의 종류는 각각)” 로 수정하면 된다.

분류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들을 갖는 개념들을 모으고 이 공통적인 속성을 내포하는 새로운 하나의 유개념을 발견하여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바로 이 유개념 속에 종속시키는 작업을 말한다(오용득, 2005:26). 쉽게 말해 분류란 개념의 내포를 축소시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개의 종개념을 하나의 유개념으로 합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차통역’, ‘동시통역’ 등의 개념을 ‘통역’으로 합칠 수 있다. 종개념을 유개념으로 합칠 때 다음과 같은 2 가지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모든 종개념은 유개념과 함축 관계를 가져야 한다.

㉟-8.삼성전자는 반도체, 핸드폰, TV 및 모니터 등 영상기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 가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8.三星電子在半導體、電視、顯示器、手機、冰箱、洗衣機和空調等白色家電領域達到世界頂級水平，是一家全球電子企業。

㉠-8. 삼성전자는 반도체, TV, 모니터,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등 백색 가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세계적인 전자기업이다.

학습자는 ㉟-8의 순서에 따라 ‘반도체, 핸드폰, TV 및 모니터 등 영상기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 가전 부분’을 “半導體、電視、顯示器、手機、冰箱、洗衣機和空調等白色家電領域(반도체, TV, 모니터, 핸드폰,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등 백색 가전 부분)”로 통역하였다. ‘백색 가전’은 사람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는 전자제품으로 세탁기, 일부 주방 가전제품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원문에서 언급한 ‘TV, 모니터, 핸드폰’ 등은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흑색가전에 속한다. 그리고 ‘반도체’는 전자제품에 속하지 않는 하나의 핵심 원자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半導體、顯示器、手機(반도체, 모니터, 핸드폰)” 등의 종개념이 유개념인 ‘백색가전’에 함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8은 종개념과 유개념의 관련성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不僅在半導體、

手機等領域，還在電視與顯示器等影響設備、以及冰箱、洗衣機和空調等白色家電領域 (반도체, 핸드폰 등은 물론 TV, 모니터 등 영상설비,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 부분) ”처럼 같은 종개념에 속한 유개념끼리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8의 관련성 오류를 없앨 수 있다.

한정이란 개념의 내포를 증가시켜 외연을 줄어든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정은 외연이 큰 개념을 외연이 작은 개념으로 제한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쁜 꽃’은 ‘예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꽃’이라는 개념을 한정하는 것이다. ‘천천히 먹다’의 경우, ‘먹다’라는 개념은 ‘천천히’라는 개념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다. 개념의 외연을 한정할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한정하는 개념은 한정되는 개념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한정할 때 이와 대립관계, 모순관계, 반대관계를 가진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㉟-9.쉽게 생각하면 4가지의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후 떡을 만든 게 SDR이라고 보면 됩니다.

㉠-9.那麼簡單地說，是用四種面來和面做成的米糕，這就是我們所謂的特別提款權。

㉠-9.쉽게 말하자면 4가지 밀가루를 반죽한 후 만든 쌀떡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DR이다.

학습자는 ㉟-9의 ‘4가지의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후 떡을 만든 게’를 “用四種面來和面做成的米糕(4가지 밀가루를 반죽한 후 만든 쌀떡)”로 통역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用四種面來和面做成(4가지 밀가루를 반죽한 후 만든)”은 “米糕(쌀떡)”을 한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面(밀가루)”은 밀가루라는 뜻으로 쌀로 만든 “米糕(쌀떡)”과 관련성이 없는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9는 한정하는 개념과 한정되는 개념 간 관련성이 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9 중의 “米糕(쌀떡)”를 “發糕(쌀, 밀 등 곡식으로 만든 빵)” 또는 “蛋糕(케이크)”으로 수정하면 된다.

㉔-10. 예로부터 일본은 장수국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복지, 실버산업까지 갖춰진 나라인데요.

㉕-10. 日本是一个長壽國家，對老人有好的的偏見，除此之外，福利和銀發產業較為健全。

㉕-10. 일본은 장수국가로 노인에 대한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와 실버산업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학습자는 ㉔-10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을 “對老人有好的的偏見(노인에 대한 좋은 편견)”으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好(좋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偏見(편견)’과 상호 모순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㉕-10은 한정하는 개념과 한정되는 개념이 서로 모순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만약 “對老人有好的的偏見(노인에 대한 좋은 편견)”을 “對老人沒有偏見(노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이나 “對老人的社會氛圍比較友好(노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우호적이다)”로 수정하면 개념 간 모순관계와 논리적 오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한정하는 개념은 한정되는 개념과 함축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즉 한정되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㉔-11. 법정관리 결정 이후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주요 항구에서 울스톱 되면서 벌어진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㉕-11. 韓進海運決定法定管理之后，他們的所有的搬運工作都停止了，所以引起非常大的物流大亂。

㉕-11.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결정 이후 모든 운반 업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주 큰 물류대란을 이뤘다.

학습자는 ㉔-11의 ‘글로벌 물류대란’을 “非常大的物流大亂(아주 큰 물류대란)”으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한정하는 개념인 “非常大(아주 크다)”는 한정되는 개념인 “物流大亂(물류대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㉕-11은 한정하는 개념과 한정되는 개념이 함축관계를 갖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㉕-11 중에 “非常大(아주 크다)”를 삭제하면 한정 개념 간의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㉔-12. 물론 이런 소비자가 화장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요.

㉕-12. 消費者難以正確地分清化妝品的相關信息選擇產品。

㉕-12. 소비자는 화장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

학습자는 ㉔-12의 ‘정확히 인식하고’를 “正確地分清(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하다)”으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한정하는 개념인 “正確(정확하다)”는 한정되는 개념인 “分清(분명하게 구분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㉕-12는 한정하는 개념과 한정되는 개념이 함축관계를 갖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㉕-12 중의 함축된 개념인 “正確地(정확하게)”를 삭제하여 “消費者難以分清化妝品的相關信息選擇產品(소비자는 화장품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처럼 수정하면 전체 문장의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정의란 개념의 내포를 축소시켜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의의 목적은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있다. 그 이유는 개념의 문자적(또는 기술적)인 의미를 자세히 보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기(박만준 역, 2018:115)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란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는 학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이 때 ‘학교’는 정의되는 개념이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하는 개념이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음과 같이 2가지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정의하는 개념의 외연은 정의되는 개념의 외연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하는 개념이 정의되는 개념보다 넓어서도 안 되고, 좁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㉔-1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㉕-13. 韓國是全球十大經濟國，但也是碳排放量方面的九大國家。

㉕-13.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탄소 배출량에 있어 9대 국가이기도 합니다.

학습자는 ㉔-13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를 “韓國是全

球十大經濟國(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다)”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국가’를 “韓國是碳排放量方面的九大國家(한국은 탄소배출량에 있어 9대 국가이다)”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 정의되는 개념인 “韓國”은 정의하는 개념인 “全球十大經濟國(세계 10대 경제국)”과 “碳排放量方面的九大國家(탄소배출량에 있어 9대 국가)”의 외연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13은 정의하는 개념의 외연과 정의되는 개념의 외연이 동일하지 않은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때 ㉑-13을 “韓國是全球第十大經濟體, 也是全球第九大碳排放國(한국은 세계 제10대 경제체이자 제9대 탄소배출국이다)”로 수정하면 정의하는 개념과 정의되는 개념 간 관련성 오류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정의하는 개념은 직·간접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의되는 개념 자체가 정의하는 개념에 나타난다면, 이 정의는 정의되는 개념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만준 외, 2018:115).

㉑-14. 유전자 편집은 유전체의 특정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DNA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공 DNA 절단 효소인 ‘유전자가위’는 그 중 대표적 기술이다.

㉑-14. 基因編輯是人類對特定基因進行編輯的技術, 其中最具代表性的是“基因剪刀”。

㉑-14. 유전자 편집은 인류가 특정 유전자를 편집한 기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전자가위’이다.

㉑-14는 “基因編輯(유전자 편집)”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하지만 정의되는 개념인 “基因編輯(유전자 편집)”은 정의하는 개념인 “人類對特定基因進行編輯(인류가 특정 유전자를 편집한다)”에 포함되어 있다. 즉 “人類對特定基因進行編輯(인류가 특정 유전자를 편집한다)”를 사용하여 같은 개념인 “基因編輯(유전자 편집)”을 정의하는 셈이기 때문에 ㉑-14는 순환적 정의라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때 “基因編輯是人類對特定DNA片段進行修改的

技術(유전자 편집은 인류가 특정 DNA 절단 효소를 수정한다)”로 수정하면 ㉑-14의 순환적 정의로 인한 논리적 오류를 없앨 수 있다.

4.2. 형식적 측면: 복합명제와 논증의 타당성

복합명제와 논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복합명제와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 간의 형식적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합명제와 논증의 형식적 오류는 크게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단순명제와 논리적 연결사 간의 관계, 즉 논리적 연결사 사용의 오류, 단순명제 배열 관계의 오류, 그리고 단순명제 배열 순서의 오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열 관계의 오류는 주로 관련이 없는 요소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하는 관련성의 오류로 복합명제,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복합명제나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들을 결합하는 논리적 연결사는 문맥과 부합하여야 한다. 논리적 연결사는 복합명제나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 간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 기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오류를 범하게 된다.

㉑-15. ㉑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져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㉑-15. ㉑經濟、社會、政治上的不確定因素日益增多, ㉒但未來更難以預測。

㉑-15. ㉑경제, 사회, 정치의 불확실성이 날로 많아졌지만 ㉒미래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

㉑-15는 ㉑“經濟、社會、政治上的不確定因素日益增多(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져)”과 ㉒“但未來更難以預測 (미래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로 구성된 연언명제이다. 명제 ㉑과 명제 ㉒는 인과 관계를 갖고 있어 역전관계를 나타내는 “但(하지만)”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명제 ㉑과 명제 ㉒ 간의 논리적 연결사인 “但(하지만)”을 아예 삭제하거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所以”로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복합명제나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⑤-16. 지금 중국 관광객은 싸구려 관광을 하고 있으며 거의 여행 경비를 내지 않고 한국에 옵니다.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러한 한국여행을 체험한 유커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①-16. ①現在中國游客沒有享受到質量好的旅游, ②出行韓國的旅費几近爲零, ③旅行社從免稅店獲得大量回扣, ④有這種旅游經驗的游客不會再來韓國。

①-16. ①지금 중국 관광객은 양질의 여행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②한국에 가는 데 여행 경비를 거의 내지 않고 ③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있어, 이러한 여행경험이 있는 관광객은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①-16은 4개의 명제로 구성된 논증이다. ①“現在中國游客沒有享受到質量好的旅游(지금 중국 관광객은 양질의 여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②“出行韓國的旅費几近爲零(한국에 가는 데 여행 경비를 거의 내지 않고)”, ③“旅行社從免稅店獲得大量回扣(여행사는 면세점을 통해 많은 커미션을 받고 있다)”는 논증의 전제이고, ④“有這種旅游經驗的游客不會再來韓國(이러한 여행경험이 있는 관광객은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는 논증의 결론이다. 하지만 전제 ①, 전제 ②, 전제 ③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이들은 결론 ④와도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①-16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다. ①-16을 ①如今中國游客的赴韓游變成了“廉價劣質游”(지금 중국관광객의 한국여행은 싸구려 저질 상품으로 변질되었다), ②大部分都是“零團費”(비용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因爲旅行社從免稅店獲得了大量的回扣(그 이유는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 많은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 ④也正因如此, 很多游客表示不會再來韓國旅游(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로 수정하면 명제 간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복합명제나 논증을 구성하는 단순명제는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거나

사물 발전의 선후 논리 순서대로 배열되어야 하며 특정 민족의 사고방식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왕커시(王克喜, 2015)는 “언어와 사고방식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사회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사고는 반드시 언어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인류의 언어사고가 일정한 모델과 서열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어의 논리 배열 순서와 관련하여 무펑량(穆風良, 2009)¹¹⁾은 선후율(先後律), 인과율(因果律), 대소율(大小律), 경중률(輕重律), 허실률(虛實律)을 제시하였다. 즉 중국인들은 직관적이고 전체에 편중되어 있는 원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 위치, 방식, 원인 등 부차적인 정보를 언급한 다음 결과나 결론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연역보다 귀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황을 묘사할 경우 객관적인 상황은 앞에, 화자의 주관적 평가는 뒤에 서술하며 사실 묘사와 관점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 사실 묘사가 먼저 등장하고 개인의 관점은 그 후에 등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미 아는 정보는 앞에, 모르는 정보는 뒤에 나타낸다. 위펑환(于增環, 2012)은 “비록 인과율, 선후율, 대소율, 경중률, 허실률 등은 각 민족이 모두 가지고 있는 논리 규율이지만 동일한 논리 규율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언어에서 표현되는 논리적 형식과 어순은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언어의 규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후율은 객관적 사태나 동작을 진행하는 순서를 표현할 때 드러나며 사태 시간적 선후 규율이라고도 한다. 중국어의 경우, 객관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사태나 진행하는 행위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사태나 행위를 서술한다.

⑤-17. 씹거나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푸레 형식의 음식을 섭취하는데, 즉 같은 모양은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17. 无法吞咽并咀嚼食物的人大部分都是吃果泥类的食物。果泥就像粥一样，會影響人的食欲。

①-17. 음식을 삼키고 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푸레 형식의 음식을

11) 穆風良(2009)에서 제시된 ‘응고율(凝固律)’, 간약률(簡約律), 병우율(駢偶律)은 논리적 범주와는 관련이 없고 주로 수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규율이라 본고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

섭취한다. 푸레는 죽처럼 사람의 식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자는 ㉓-17의 ‘씹거나 삼키는 데’의 순서를 “呑咽并咀嚼(삼키고 씹다)”로 통역하였다. 문법과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 세계의 선후 순서를 위반한 표현이다. 인간은 보통 음식을 씹은 후 삼킨다. 음식물을 삼키고 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두 동작의 순서를 도치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㉓-17은 객관적 선후 순서를 위반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를 咀嚼并呑咽(씹고 삼키다)로 수정하면 된다.

대소율은 시공(時空)을 인식하거나 대소개념의 논리질서에서 나타나며 시공의 대소 규율이라고도 한다. 중국어는 시공과 상관없이 큰 개념을 먼저, 작은 개념을 나중에 사용한다. 즉 시간이나 공간을 표현할 때 전체에서 부분으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의 순서로 서술한다.

- ㉓-18. 억류된 상태의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과 벌크선 4척으로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98척의 절반에 달한다.
- ㉓-18. 被扣押的船舶当中41艘是集裝箱船, 4艘是散裝貨輪, 韓進海運共有98艘船舶, 其中一半是已經被扣押了.
- ㉓-18. 억류된 선박 중에 41척은 컨테이너선이고 4척은 벌크선이다. 한진해운은 선박 9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억류되었다.

학습자는 ㉓-18의 순서에 따라 ‘컨테이너선 41척과 벌크선 4척으로 한진해운’이라는 표현을 “韓進被扣押的船中41艘是集裝箱船, 4艘是散裝箱船(억류된 선박 중에 41척은 컨테이너선이고 4척은 벌크선이다)”으로 통역하였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韓進共有98艘船, 其中一半被扣(한진해운은 선박 9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억류되었다)”라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비록 ㉓-18의 어순이 ㉓-18과 같긴 하지만, 이는 전체에서 부분 순으로 진행되는 중국어의 논리적 사고와는 부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무평량(穆平良, 2009)에서 제시한 중국어 대소율에 따라 ㉓-18을 전체적으로 ‘총 98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이 억류되었다’라고 통역하여야 한다.

4.3. 내용적 측면: 단순명제의 건전성

단순명제의 건전성은 이를 구성하는 개념의 내포가 다른 개념의 내포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명석함’, 그리고 개념의 외연이 다른 개념의 외연과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분명함’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명석하지 않고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한다면 화자의 의도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단순명제의 건전성 오류는 구체적으로 애매한 개념의 오류,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을 혼동하는 오류,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3.1. 애매한 개념의 오류

일반적으로 많은 단어나 표현이 2가지 이상의 뜻으로 사용된다. 다의적인 개념의 예로서 우리는 눈, 손, 배, 다리, 발을 비롯하여 보수, 기도, 연기 등을 들 수 있다(성흥기, 2019:83). 이러한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문맥에서 상이한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도 이에 해당된다. 문장 속에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는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같은 단어나 표현이 각기 다른 문맥에서 상이한 뜻으로 사용되면 정확한 의미 전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 ㉓-19. 그는 수술을 받고 있다.
- ㉓-19. 他正在做手術.
- ㉓-19. 그는 수술을 하고 있다.

학습자는 ㉓-19 중의 ‘수술을 받고 있다’를 “做手術(수술하다)”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做手術(수술하다)”는 의사로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환자로서 수술 받고 있는 것의 2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㉓-19는 이러한 애매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를 “他正在接受手術(그는 수술을 받고 있다)”로 수정하면 된다.

㉟-20. 중국인들은 1990년대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단 한 대도 제조하지 못했습니다.

㉠-20. 在上世紀90年代中國連一台筆記本電腦也不能生產。

㉠-20. 1990년대에는 중국은 노트북 한 대도 생산할 수 없었다.

학습자는 ㉟-20 중의 ‘제조하지 못했습니다’를 “不能生產(생산할 수 없다)”으로 통역하였다. “不能生產(생산할 수 없다)”이라는 개념은 허락되지 않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의 2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은 이러한 애매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上世紀90年代，中國連一台筆記本電腦都无法生產(1990년대 중국은 노트북 한 대조차 생산하지 못했다)”로 수정하면 된다.

4.3.2.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을 혼동하는 오류

진술할 때 상황에 따라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고 과정에서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동일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집합개념이 되기도, 단일개념이 되기도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김득순, 2014:30).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다.

㉟-21.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단어들은 적은 편이다.

㉠-21. 牛津英語詞典收錄的韓國語詞匯比較少。

㉠-21.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어휘들이 적은 편이다.

학습자는 ㉟-21 중 ‘단어’라는 표현을 “詞匯(어휘)”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詞匯(어휘)12)”라는 개념은 어휘를 뜻하는 집합개념으로 전체 집합을 하나의 대상에 반영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와 같은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21은 집합개념을 단일개념으로 혼동한 대표적 사례이다. ㉠-21 중의 “詞匯(어휘)”를 단일개념인 “詞(단어)” 또는 어휘의 수량을 뜻

12) “詞匯(어휘)”, “花卉(화훼)”, “魚類(어류)”와 같은 개념은 단일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운 집합개념이다. 장슈팅 (張秀廷, 2013:120) 참조

하는 “詞匯量(어휘량)”으로 수정하면 집합개념과 단일개념의 혼동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㉟-22. 순천만국가정원이 위치한 순천 도사동 일대 정원부지 112만㎡에는 나무 505종 79만 주와 꽃 113종 315만 본이 식재됐다.

㉠-22. 順天灣國家公園位于順天市道沙洞附近，公園總面積為112萬平方米，園內共有505種的79萬棵樹木、113種的315萬株花卉。

㉠-22.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 도사동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총 면적은 112만㎡이며, 정원 내에 505종 79만 주 수목과 113종 315만 본 화훼가 있다.

학습자는 ㉟-22의 ‘나무’와 ‘꽃’을 “樹木(수목)”과 “花卉(화훼)”로 통역했다. 중국어의 “樹木”과 “花卉”는 각각 나무와 화훼를 뜻하는 집합개념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22도 집합개념을 단일개념으로 혼동한 오류 사례이다. 이를 “園內有505種樹，共79萬棵，另外還有113種花，共315萬株(정원 내에 나무 505종, 총 79만 주가 있다. 또한 꽃 113종, 총 315만 본이 있다)”로 수정하면 개념의 혼동 오류를 없앨 수 있다.

4.3.3.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

통상적으로 우리는 지시하는 대상을 지칭하면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 표현된 말 그 자체를 지칭하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기호로서의 ‘언급’이라고 한다. 언어로 의미를 전달할 때 말의 사용과 언급을 정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성홍기(2019:158)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 홑따옴표를 하거나 ‘...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사용과 언급 혼동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통역의 특성상 결과물에서 ‘홑따옴표’를 음성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언급’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㉟-23. 핀테크란 IT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㉑-23. 金融科技是金融服務+IT技術的合成詞。
- ㉑-23.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와 IT기술의 합성이다.

학습자는 ㉑-23 중의 ‘핀테크’라는 표현을 “金融科技(핀테크)”로 통역하였다. ㉑-23에서는 “金融科技(핀테크)”라는 개념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핀테크’라는 말을 지칭하는 언급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의 개념을 문자 언어로 산출할 때 홀따옴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음성 언어로 산출할 때는 “這一詞(라는 용어)”와 같은 표현을 붙여 줘야 한다. ㉑-23 같은 경우 “金融科技(핀테크)” 뒤에 언급을 표시하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 언급을 사용으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 ㉑-24. 세계적으로나 학계의 HCI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광의의 의미로 쓰이는데 전략 수립, 상품 기획, 정보설계, UI 디자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㉑-24. 無論是在世界範圍還是在學界的人機交互(HCI)研究領域，設計這一詞包括戰略規劃、產品策劃、信息設計、UX設計等。
- ㉑-24. 세계적으로나 학계의 HCI 분야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전략 계획, 제품 기획, 정보설계, UX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는 ㉑-24 중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設計這一詞(디자인이라는 용어)”로 통역하였다. 표현 측면에서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장 측면에서 보면 ‘디자인이라는 용어’라는 개념은 ㉑-24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지칭하는 언급의 개념이지만 ㉑-24에서 “設計(디자인)”는 ‘디자인’이라는 말을 지칭하는 언급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디자인’이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사용의 개념이다. 따라서 ㉑-24는 사용을 언급으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㉑-24에서 “設計(디자인)”라는 개념은 ‘라는 말’을 뜻하는 “這一詞”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

4.4. 내용적 측면: 복합명제와 논증의 건전성

복합명제와 논증 측면의 건전성을 평가¹³⁾하는 것은 이를 구성하는 단순명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류가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적 오류는 특징에 따라 심리적 오류, 자료적 오류, 언어적 오류로 나눌 수 있다. 통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적 오류는 주로 언어의 부주의로 생긴 다의성의 오류, 즉 애매한 문장의 오류이다.

언어의 다의적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오류는 개념 측면 외에 명제나 논증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성홍기(2019:85)에서는 “애매성은 비단 개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명제 내에서 문법적인 배열이나 문장 기호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진술자체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명제와 논증 측면에서 애매성의 오류는 주로 문장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2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를 애매한 문장의 오류라고 한다. 구체적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㉑-25. 여기에 북한은 노동력과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 ㉑-25. 現在北韓擁有豐富的勞動力，還有優秀的軟件方面的人才。
- ㉑-25. 지금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학습자는 ㉑-25 중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을 “優秀的軟件方面的人才(우수한 소프트웨어)”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형용사인 “优秀(우수하다)”는 “軟件(소프트웨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人才”를 수식할 수도 있어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지 우수한 인재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형용사 “优秀(우수하다)”와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구 “軟件方面的(소프트웨어 분야)”의 배열 순서를 “軟件方面的優秀人才(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 인재)”처럼 수정하게 되면 애매한 문장으로 인한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㉑-25는 구조적 배열

13) 명제와 논증 측면의 건전성은 단순명제, 복합명제, 논증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14) 5장 명사의 수식어 배열 순서를 참조한다.

로 인한 애매한 문장의 전형적인 오류 사례라 할 수 있다.

- ㉔-26. 전 세계를 풍미한 사이의 노래가 해외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은 동시에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였다.
- ㉕-26. 風靡全球的鳥叔的歌曲，在國外受到極大的人氣，同時也提高了韓國的國家形象。
- ㉖-26. 전 세계를 풍미한 사이의 노래가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동시에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였다.

학습자는 ㉔-26의 ‘전 세계를 풍미한 사이의 노래’를 “風靡全球的鳥叔的歌曲(전 세계를 풍미한 사이의 노래)”로 통역하였다. 하지만 “風靡全球(전 세계를 풍미한)”라는 표현은 “鳥叔(사이)”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언급된 “歌曲(노래)”를 수식할 수도 있다. 즉 세계를 풍미한 가수인 사이가 만든 노래(“鳥叔(사이)”를 수식)와, 사이의 곡 중 세계를 풍미한 노래(“歌曲(노래)”를 수식)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㉕-25와 마찬가지로,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鳥叔”와 동사구 “風靡全球的(전 세계를 풍미한)”의 배열 순서를 “鳥叔風靡全球的歌曲(사이의 전 세계를 풍미한 노래)”처럼 수정하게 되면 문장 구조로 인한 의미의 애매성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㉕-26도 문법적 배열 순서로 인한 애매한 문장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㉗-27.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범상치 않은 국방력을 갖춘 북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동북아 긴장 관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 ㉘-27. 我們從北韓發射導彈可以知道北韓已經具備了很強的國防實力。在此情況下，北韓落入中國手中，可能會給東北亞地區帶來不穩定性。
- ㉙-27.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이 막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동북아 지역에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학습자는 ㉘-27의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을 “我們從北韓發射導彈可以知道(‘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로 통역하였다. 이 표현은 ‘한국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2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에

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㉘-27의 경우 구조적인 개념의 누락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北韓發射導彈(북한 미사일 발사)” 뒤에 해당사건의 언급을 의미하는 “這件事情(라는 것을)”을 첨가하여 “我們從北韓發射導彈這件事情可以知道(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통해)”로 수정하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을 통해 ...을 알 수 있다’라는 1가지 뜻으로 해석되므로 문장의 애매한 의미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㉘-27도 문법적 구조로 인한 애매한 문장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5. 결론

통번역 교육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통역의 형태는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이다. 연사의 발화와 통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과 달리 연사가 발화를 마친 이후에 통역이 이어지는 순차통역은 통역의 품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통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지닌 클라이언트나 청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오늘날 통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순차통역의 품질은 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임정순, 2021). 하지만 순차통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문법이나 통역 기술에 편중되어 있다. 논리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통역 관련 연구 분야에서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논리는 언어의 기본이자 근본이다. 통역 결과물에 논리가 없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자는 통역 과정에서 논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 순차통역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의 한중 순차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유형은 크게 형식적 측면의 오류와 내용적 측면의 오류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오류는 단순명제의 타당성, 복합명제와 논증의 타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적 측면에서의 오류는 단순명제의 건전성, 복합명제와 논증의 건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단 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내용적 오류의 출현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나타난 유형은 형식적 오류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본고에선 형식적 오류

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오류는 통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언어 현상으로서 문법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문법 외에 논리 측면에서도 교차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통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법 위주 교육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국내과 화자, 해외과 화자, 그리고 한족(漢族) 화자와 조선족(朝鮮族) 화자 4개 집단의 40명 학습자의 통역 결과물에서 모두 크고 작은 논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류 유형의 분포 양상을 비교한 결과 4개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연구 데이터 부족 등 이유로 분석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고가 향후 한중 순차통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수정 (2019) 「탈언어화 번역학습방법이 외국어 습득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20(4): 7-28.

김광수 (2018).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현실사, 289-302.

김득순 (2014). 『이야기속의 논리학』. 밝은누리, 11-120.

김희정, 박은지 (2008)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20-67.

남성우 (201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한국문화사, 354.

박만준 (2015) 『논리학 입문』, Irving M. Copi, Carl Cohen, Kenneth McMahon (2018) 『Introduction to Logic』 번역, 경문사 8-115.

성흥기 (2019) 『진리와 논리적 사고』, 이문출판사, 10-170.

이요강 (2019) 「한중 순차통역 평가 기준 연구: 도착어 텍스트 내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용득 (2005) 『고전 논리의 형식적 원리』, 책피냄 열린시, 1-78.

오희찬 (2013) 『형식논리와 논술』, 도서출판 종문화사, 130-140.

임정순 (2021) 「맥락에 기반한 통역 교육: AB 순차 통역 수업 사례 분석」, 『번

역학연구』, 22(1): 219-245.

李衍華 (2010) 『邏輯·語法·修辭』, 北京大學出版社, 5-40.

穆風良 (2009) 『邏輯比較与英漢翻譯』, 國防工業出版社, 8-78

王克喜 (2015) 『語言与邏輯』, 中國書籍出版社, 34-35.

賀龍平 (2013) 「論文學翻譯中的邏輯問題」, 『吉首大學學報』第34卷, 149.

于增环 (2012) 「論翻譯中邏輯律的轉換」, 『湖南科技學院學報』, 第33卷第9期, 137-139.

張秀廷 (2013) 『邏輯概念新論』, 人民出版社, 119-121.

[Abstract]

**Analysis of logical errors in the results of Korean-Chinese
consecutive interpretation**

Yao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secutive interpretati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ode of interpreting, but most of the research on it has focused on grammar and interpretation skills. Since logic exists in a form that cannot be seen or touched, it is true that it has been neglected in the field of interpretation related research. However, if there is no logic in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problems big and small inevitably arise.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gic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and to provide practical data to the Korean-Chinese consecutive interpretation education field, this researcher considered the logical errors in the results of the Korean-Chinese consecutive interpretation of learners.

Logical errors that appear in interpretation resul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rmal fallacy and informal fallacy. Errors in the formal aspec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validity of the proposition an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and errors in the informal aspec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soundness of the the validity of the proposition an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rrors are a kind of linguistic phenomenon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not only in grammar, but also intersecting and repetitive in terms of logic other than grammar. This implies that learners should not be limited to grammar-oriented education in the process of learning interpretation, but should approach with a more diverse and systematic analysis.

▶ Key Words: Korean-Chinese consecutive interpretation, error analysis, formal fallacy, informal fallacy, logical error

▶ 주제어: 논리적 오류, 내용적 오류, 한중 순차통역, 오류 분석, 형식적 오류

야오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조교수
kk29yao@naver.com

관심분야: 통번역, 통번역 교육, 통번역평가, 언어학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4일